

현대 니트 패션의 디자인 개발 방향

최경희 · 이순홍*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성신여자대학 의류학과

Direction of Design Development in Modern Knit Fashion

Kyung Hee Choi, Soon-Hong Lee*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1. 서 론

최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 개성화, 차별화되면서 스포츠 · 레저의 대중화, 자연스러움의 회귀, 기술의 발달 등의 사회적인 추세에 힘입어 니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니트웨어는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 신축성, 드레이프성, 성형성에 의한 조형적인 자유로움 등을 줄 수 있는 특성으로 개성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기호에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다양한 코디네이트가 가능하게 하여 언더웨어에서부터 아우터웨어, 액세서리에 까지 그 용도가 폭넓게 활용되어져 기능성과 심미성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니트웨어는 원사의 활용에 의해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기종과 조직, 색상의 변화에 따라 무한한 개성과 고급화를 연출할 수 있어 캐주얼하고 모던한 요소에서부터 과다한 장식적 요소까지 두루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활발하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또한 CAD(Computer Aided Design) ·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등의 니트웨어 제조과정 시스템의 자동화와 컴퓨터의 발달은 생산에서의 높은 효율과 함께 니트웨어 디자인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앞으로의 니트웨어의 개발 방향은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감성과 기술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니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는 가운데, 특히 니트웨어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패션 산업에서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대 니트 패션의 디자인 개발 방향을 기술적 측면, 예술적 측면, 토탈 패션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니트 디자인의 개발 방향

1) 기술적 측면

기술의 진보와 발달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창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니트 아이템이 패션으로 인식되고 지속적으로 인기 아이템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놀라운 정도로 발달되어온 니트 기계 산업의 발달에 근거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니트 기계 산업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독일은 특히 경편니트 기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1970년대의 환편 더블저지는 대부분 컴퓨터에 장착된 디자인(CAD)의 패턴 시스템에 의해 편성되었다.

그 이후로 각각의 니들의 선택과 더불어 경편니트 기계에 적용된 전자 조절은 패턴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독창

적이고 다양한 많은 범위를 부여하여 손뜨개의 느낌을 초월한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 원리는 정교한 CAD 패턴 준비 시스템이 기계생산에 직접 연결되어진 것으로 전자 기계조절과 함께 디자인 시스템으로부터 패턴 준비데이터가 기계언어로 변환되어지고 니팅 결과의 데이터가 니팅 기계에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현대 니트 산업의 기술적 측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양말, 장갑, 란제리와 최근 니트제품에서 활발하게 개발되어지는 무봉제(일체 성형 : integral)니트와 혁명의 옷 개념인 잇세이 미야케의 A-POC을 들 수 있다. 또한 현대 니트 패션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능성을 가진 신소재의 사용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이테크의 미적 표현도 함께 시도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미적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따라서 현대 니트패션의 기술적 개발 방향으로 크게 무봉제 니트와 A-POC, 신소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봉제 니트

홀 가먼트(Whole garment, 무봉제)란 기존의 앞판, 뒷판, 소매판을 각각 따로 편성한 다음 함께 봉합하던 것을 한 개의 조작으로 삼차원적 편성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편성품을 뜻한다. 나이가 홀가먼트 기계는 컴퓨터 횡편기에서 봉제가 필요 없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편기를 의미한다.

이 혁신적인 횡편기는 소매와 몸판에서 동시에 코를 형성하여 편기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어깨부분과 칼라부분 등을 성형(full fashioned knitting)을 하여 만들 수 있으며 크게는 V(2가지 needle beds)와 X(4가지 needle beds)형의 횡편기로 구분된다. 이 편기는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재단, 봉제, 링킹과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재단에서의 로스(loss)를 막을 수 있으며, 홀 가먼트 기술에 따라 필요한 수의 스웨터만을 즉각 편성할 수 있어 편성하는데 드는 니드 타임이 단축된다.

홀 가먼트 기술은 기본 스웨터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모자, 스카프, 가디건, 베스트, 재킷, 코트, 점프 슈트, 드레스, 스커트, 레그 워머, 타이츠, 양말 등을 한 조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무봉제니트를 생산하는 홀 가먼트 편직은 유럽에서는 약 2천대의 기계가 있을 정도로 제품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아한 실루엣과 편안한 바디 라인을 형성하여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편직물의 생산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 외에도 무봉제 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성형(成形)을 발전시킨 편직 기술로 인터그럴 니팅(integral knitting)을 들 수 있다. 이 인터그럴 니팅은 일반 편직시에 가공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칼라, 주머니, 옷깃, 단추구멍, 마크, 주름 등과 같은 부속들의 접합공정이나 단추구멍과 같은 후가공 공정들을 편기의 편성공정에서 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편성방법이다.

무봉제 편직 기술은 기존의 편직 공정에서의 가공 공정과 봉제선이 없으므로 소량 단품종 생산에 가장 알맞으며 편성물의 복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들을 함께 편직함으로써 좀더 우수한 외관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 별을 통째로 그대로 짜 올라가는 이 방법은 시간과 코스트 면에서 공급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고 후가공마저 없애 니트업계를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현대적 산업으로 탈피시켰다.

(2) A-POC

A-POC 개념은 ‘기술의 이미지화와 적용의 동시적인 도약’을 뜻한다. A-POC(옷의 A 피스를 위한 보기와 신기원 단어를 이용함)은 잇세이 미야케(Issey Miyake)와 잇세이 미야케 스튜디오 디자인팀 소속의 데이 후지와라(Dai Fujiwara) 사이의 합작연구이다. 이 연구는 1997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고객이 참여하는 과정 안에서의 전체 과정이 계속된 작업으로 총 4개의 단계 안에서 시도되었다.

A-POC의 근본적인 원리는 잇세이 미야케가 1970년에 원단 한 조각으로 최대를 창조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즉 A-POC의 작업은 제작 과정에서 로스가 전혀 없이 최소로 재단하고 봉제하며 후가공이 없는 과정으로서 그가 스튜디오를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것이다. 이것은 좁은 천으로 된 하나의 긴 롤(roll)로부터 만드는 기모노의 클래식한 구조와 비슷하다.

A-POC의 발표 당시에는 옷에 술이 달린 롤에 가위를 사용하여 하나씩 옷이 풀어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직접 멀리서 걷고 있는 모델들에게 A-POC 원리를 적용한 드레스, 스커트, 속옷, 모자, 장갑, 양말, 가방 등이 입혀졌다. 그 후 실험이 계속되면서 옷의 형태들, 내부의 디자인과 소재에 따른 패턴 기술도 발전되어지고 컴퓨터 상에서 정교하게 개발되어져 솔기와 가공이 없는 제품이 생산되었다.

A-POC은 컴퓨터로 조정되어, 각각의 연결 스티치가 수직적으로 따라서 생기는 화인 매쉬로부터 섬유를 만드는 경편니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그래픽 패턴을 만들고 매쉬의 내부의 패턴과 함께 3차원적 의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의상을 풀고 열었을 때 세분화된 튜

블러(tubular) 형태를 만들기 위해 큰 튜브 안에서 옷 형태의 윤곽이 디자인되어진다. 절개라인은 각각의 경편 실들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지 않은 틈에 의해 연결되어지면서 미묘하게 윤곽을 그려진다.

(3) 신소재의 개발

천연섬유에서부터 합성소재까지의 변천과 개발은 첫 번째 합성소재인 레이온이 발명되었던 19세기 말부터 비고적으로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져왔다. 1938년에 출현된 나일론(폴리아미드, polyamide)에 이어 인조 실크로서 알려진 레이온(rayon)과 울(wool) 대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아크릴(acrylic) 외에도 천연소재의 퀄리티를 모방한 합성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비스코스 레이온은 드레이프성과 광택이 우수하여 이를 사용한 니트웨어의 유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많은 양이 제조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소재 분야가 발달되어온 일본 등에서 개발, 활용된 제조하는 동안의 독특한 텍스쳐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인조사를 활용한 니트 제품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부드럽고 세련된 감촉과 우수한 가공으로 개발된 극세사인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그리고 비스코스 등의 신소재 외에도 높은 신장력과 내구력, 가볍게 표현되는 별기성과 수분 흡수력을 갖춘 하이테크 섬유를 위한 고품질의 원사가 개발되어졌다.

‘텐셀(tencel)’이라는 이름으로 1988년에 꾸톨즈(Courtaulds)에 의해 만들어진 셀룰로이즈 섬유인 리오셀(Iyocel)은 사용된 용해력이 있는 모든 성분이 재생되어질 수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이다. 텐셀은 일본의 가네보(Kanebo)나 도레이(Toray) 등의 회사가 섬유구조의 결합과 새로운 실가공으로부터 자연섬유로는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범주 즉 새로운 인조 퀄리티를 의미하는 ‘하이터치(high touch)’ 섬유이다. 또한 극세 마이크로 섬유와 스트레치안(stretch yarn)은 새로운 무봉제 란제리와 바디 웨어 시장의 증가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듀퐁의 라이크라 엘라스틴(lycra elastin)과 타텔 폴리아미드(tactel polyamid), 니스타즈 메릴(Nystar's Meryl), 엘리트 엘라스틴(Elite elastane) 소재는 몸에 꼭 맞으면서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대표적인 품목이다. 주로 니트웨어와 바디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엘라스토메트릭(elastometric) 스트레치 안의 사용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한편 루렉스社 브랜드의 메탈릭실(metallic yarn)은 메탈의 얇은 판이나 그 양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용하여 본딩하여 얇은 판으로 잘라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다. 이

것은 조각들로 잘라지고, 실로서 감아지는데 납작한 표면은 빛의 영향을 받아 빛난다. 최근 개발된 조각(split) 필름 기술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조각으로부터 독창적인 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극도의 텐션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필름은 가는 섬유가 들어있어 자연적으로 섬유 속에서 빛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1970년대의 유행한 스페이스 다이드(space dyed) 효과의 실은 실타래 안에서 감아지고 구분되어져 미리 결정된 순서에 의해 실타래가 모두 염색될 때까지 나중의 다른 색상으로 침염되어진다. 이것은 자카드 편직 과정과 두개 혹은 더 이상의 색상 안에서 독특한 효과를 낸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에서의 신소재의 개발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문화, 레저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됨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재 측면에서의 니트 소비양상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니트 제품들이 활발하게 개발될 전망이다.

2) 공예적 측면

1960년 이후 미술의상 작가들에 의해 예술의상의 한 영역으로 발전한 손뜨기는 일상 생활상의 실용기법들을 예술의 표현 형태로 이용하려는 운동인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니트 본래의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도입되면서 섬유예술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 니트패션은 인체를 예술의 매개체로 하여 3차원적 형식에 중점을 두고 조형성을 강조하는 미술의상 분야에 수용되어져, 니트의 조직을 응용한 의상과 미술개념을 결합시킨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니트의 특성과 다양한 재료, 조직 그리고 기법 등에 따른 표현효과를 매체로 하여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미적 개념을 표출시키는 표현으로서 디자인되어진 니트웨어는 니트의 표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재인식되면서 현대 니트 디자인에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은 다양한 표현 기법과 새로운 기술 및 개념 등을 토대로 특수 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실루엣이 극도로 표현되는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컬렉션에 나타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의 공예적 측면의 개발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팝아트나 초현실주의 등의 예술 사조를 응용한 니트웨어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아트웨어 작가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주로 손뜨기와 크로셰, 기계뜨기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혼합한 디자인이다. 셋째는 최근의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끌리주나 오브제를 도입하거나 프린팅, 과도한 장식 효과나 손뜨기 등을 응용한 현대 니트웨어이다.

(1) 소재의 다양성

1960년대에는 섬유예술이 조형예술의 한 범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60년대 중반의 팝 아트, 오브제의 등장은 섬유예술의 작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료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소재감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화와 조각 그리고 공예라는 고전적 장르의 한계를 허물어 현대 섬유예술의 표현방법과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현대 섬유예술의 양상은 선택된 오브제와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해방시키는 표현의 개념으로서 새로운 소재를 중요시하였고, 그 결과 예술적 측면에서의 표현소재로는 섬유 형태나 특성을 지난 소재는 물론 주변의 모든 물질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에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 이외에도 와이어(wire), 코드(cord), 리본(ribbon), 밴드(band), 테이프(tape), 플라스틱(plastic), 깃털(feather), 가죽(leather), 인조피혁(man-made leather) 등을 길게 실처럼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실의 굵기와 모양 등을 변형하여 염색과 더불어 훌륭한 질감을 만드는 등 새롭게 개발된 풍부한 소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주제의 다양성

특정한 용도를 고려한 일반적인 의상 디자인에 비하여 미술의상은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되어지며 주제 선정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예적 측면에서 보이는 니트웨어에 나온 주제는 크게는 자연물, 민속적 주제, 사회적 주제, 설화적 주제 등으로 분류된다.

자연물을 주제로 한 니트 디자인은 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 무질서화되고 산업화에 따른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 등으로 작품에 반영된다. 한편 민속적 주제는 산업 발달에 의해 파생된 기계화되고 소외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문명을 뛰어넘어 옛날과 민속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 주제는 주로 일본을 비롯한 극동지역, 북남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민속미술에서 나타나는 의상 이미지와 민속 고유 기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민속적 주제는 수공예물에 대한 동경과 주의를 표하며, 주술적인 신비성과 본능적 신체 장식심리가

결합한 상징적인 원초적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주제는 의상에 보다 큰 사회적 문제나 혼란을 비유적이고 암시적 기법으로 나타내거나 정치내용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인간의 파괴적 성향을 주제로 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한다.

(3) 표현 기법의 다양성

대부분의 손뜨기로 만든 니트 디자인은 작품의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제작과정에서의 무한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여러 기법들을 혼합하거나 장식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예술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제작과정에서의 우연성이 개입되어져 비계획적이고 창작적인 디자인에 적합하다. 니트를 이용한 미술의상은 주로 크로셰나 니트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용하거나 니트 조직과 여러 타(他)기법을 응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한편 기계뜨기는 간단한 재래식 가정용 수동기에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고도로 복잡한 자동편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라는 최첨단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제작 속도, 정확한 산출과 동작에 의해 예술적 표현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폭넓은 표현 가능성을 갖는다. 기계뜨기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니트 디자인은 때때로 니트 조직들을 조합해서 더욱 복잡화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3차원적 형태의 의상들을 선보여왔다.

표현 효과의 증대 및 다양화를 추구하여 타기법들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지난 니트 조직과 크로셰, 위브, 펠트, 퀼트, 아플리케 등의 타기법들을 혼합하여 하나 이상의 섬유 제작기법들을 상호 보완적이고 다각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독창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복합적인 표현 방법들을 시도해왔으며, 니팅을 위주로 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기법과 재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표현 효과의 확대 및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3) 토탈 패션적 측면

개성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니트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니트패션은 그동안의 인더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아우터웨어화되고 있다. 또한 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고급화되고 젊은 층들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되면서 다양한 품목의 감각적인 니트류가 제작되어져 니트의 토탈 패션으로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판덱스사와 같은 고탄성사가 개발되면서, 니트웨어는 신축성과 성형성의 장점을 살린 양말, 타이츠, 장갑 외에도 브래지어, 거들 등의 속

<표 1> 현대 니트 디자인 개발 방향

내용 구분	현 황	디자인의 예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봉제니트 · A-POC · 신소재의 개발 (스트레치 인조섬유, 루렉스, 스페이스 다이드안) · 기능성 추구 · 하이테크의 미적 표현 · 컴퓨터 기술 발전의 영향 · 인체공학적이고 혁신적인 니트생산의 구축 · 시마세키의 SWG시리즈, 스톤의 CMS 433 · 3차원적 편직 			
공예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의 다양성 (종이, 모피, 가죽, 필름, 금속, 구슬) · 주제의 다양성 (자연물, 민속물 주제, 사회적주제, 설화적 주제) · 표현기법의 다양성 (표현효과의 확대 및 다양한 조형과 시도) · 초현실주의, 팝아트적 요소 			
토탈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너웨어 · 아우터웨어 · 인테리어 · 소품액세서리 · 실용+감각 →토털 코오디네이션 · 패션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고급화 			

옷 등에 대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한편 외의 부문으로의 니트의 확대로 스웨터, 조끼, 코트 등의 상의에서부터 수트, 팬츠 등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유행 아이템으로서 크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운동복, 작업복에 이르기까지도 크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니트 제품의 수요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상의 코디네이트 품목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려왔던 니트 액세서리류는 핸드백, 양말, 스타킹, 구두, 모자, 벨트, 귀막이, 스카프, 넥타이, 장갑, 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것들은 니트만의 포근하고 소박한 정서와 함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거나 창의적인 예술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액세서리로서 선보이고 있다.

한편 니트 패션은 꾸준하게 패션과 유행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 발전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개성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 패션 하우스의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니트로 만든 부드럽고 편안한 인테리어 아이템의 디자인이 21세기 패셔너블한 인테리어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리렉스한 감각을 줄 수 있는 니티드 침대 커버, 쿠션, 배켓잇, 침실 양말, 가벼운 모포 등 핸드 메이드의 제품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현대 니트 패션은 전반적으로 토탈 아이템으로서의 실용적인 면과 심미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린 독특하고 개성적인 토탈 코오디네이션 감각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현대 니트 패션의 토탈화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 결 론

현대 니트 패션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기술력의 발달에 힘입어 더욱 기능적이고 패셔너블해지는 가운데 다양한 테크닉을 보이며 토탈화되고 예술화되어 가고 있다. 현대 니트 패션의 디자인 개발 방향을 기술적 측면, 공예적 측면, 토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발달한 현대 니트 기계 산업에 힘입어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편기에 의한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성이 내재된 미래지향적 분야로서의 니트웨어 디자인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홀가먼트 기술의 무봉제 니트웨어와 A-POC 제품을 들 수 있다. 무봉제 니트 제품은 봉제선이 없이 삼차원적 편성에 의한 입체

적인 실루엣과 우수한 외관이 특징이며, 재단에서의 로스와 편성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기존의 편직 공정에서의 가공 공정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 벌의 옷에 다양한 게이지의 디자인이 가능한 인체공학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니트 생산을 구축하게 되었다.

A-POC 작업은 잇세이 미야케에 의해 1997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컴퓨터로 조정되며 제작 과정에서 로스가 전혀 없고 최소로 재단, 봉제되며 후가공이 없는 과정으로 실현적인 디자인에 의해 새로운 형체를 나타낸다. 이 A-POC의 개념은 21세기의 미래 패션을 위한 혁신적인 생산에 의해 실현될 전망이다.

한편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소재의 개발은 부드럽고 세련된 극세 마이크로 섬유 등의 신소재 외에도 높은 신장력과 내구성, 벌기성과 수분 흡수력을 가진 하이테크 섬유의 개발로 더욱 고급화되고 있다. 스트레치안, 메탈릭안, 스페이스 다이드사 또는 독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식사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대 니트산업에서의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신소재의 개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예적 측면에서의 개발 방향은 니트의 특수한 질감을 살린 소재의 변화, 주제의 다양성, 표현기법에 따른 효과를 매체로 하여 예술적 요소를 추구하고 있다.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 일반적인 원사 이외에도 와이어, 코드, 리본, 밴드, 테이프, 플라스틱, 깃털, 가죽, 인조피혁 등을 응용하거나 실의 굵기와 모양 등을 변형하고 염색을 하여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팝아트나 초현실주의 등 예술사조를 응용하거나 일반적인 조직과 손뜨기, 기계뜨기 외에 여러 기법을 혼합하고 꼴리주나 오브제의 도입, 프린팅, 과도한 장식 효과를 살린 다양한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다.

토탈적 측면에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니트웨어 디자인의 아우터웨어화와 토탈 패션화에 따른 다양한 품목의 감각적인 니트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니트만의 포근하고 소박한 심미적인 특징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니트를 응용한 인테리어 소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실용적인 면과 심미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린 독특하고 개성적인 현대 니트 패션의 토탈화 경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 방향은 고부가 가치화와 기술 집약화로 크게 구분된다. 즉 컴퓨터를 내장한 자동 편직기의 발달과 더불어 소재의 개발에 의한 특수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현대 니트의 고부가

가치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의 미적 표 현감각에 따른 개성적인 니트 디자인의 창조적인 개발과 눈부신 니트 산업의 기술 집약화에 힘입어 니트에 대한 수 요와 생산의 비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 니트웨어 디자인은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혼 합하여 사용하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크게 부각시켜 디자인 의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독특한 표면 효과를 나타냄 과 동시에 단순히 실용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니트에서 탈피 하여 다른 패션 아이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창적인 표 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패션 트랜드에 발맞추어 현대 니트 웨어 디자인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현상은 성, 신분, 문화 의 측면에서 크로스 오버 현상으로 나타나 소재 활용의 영 역이 없어지고 향후 새로운 에이지레스(ageless) 개념의 니 트 디자인이 개발될 전망이다.

참 고 문 헌

- 최경희. (2005),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lack, Sandy. (2002). *Knitwear in Fashion*. London : Thomas & Hudson.
Dale, Julie Schafler. (1986).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Publishers.

Dyett, Linda. (1993). *Art to Wear*. American Craft. Oct./ Nov..

Fashion Business Society. (1999). *Terms for Knit Fabric 109 Selected Terms*.

Goldberg, John. (1986). *Art to Wear Visionary*. Ornament Vol. 10 No. 2.

무봉제 니트 생산으로 주목받는 아이디모드, (2003. 5). *Textile Times*.

<http://www.firstview.com>

최 경 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학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현재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mail : khchoi@honam.ac.kr

이 순 홍

(사)한국니트디자인학회 고문
전 성신여자대학 의류학과 교수
